Ⅰ. 회의 개요

□ **국세청**(청장 이현동)은 **1월31일(화)** 전국의 조사분야 핵심 간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**전국 조사국장 회의** 를 개최하고, **공정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결의**하였음

○ **이현동 국세청장**은 **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세무행정**을 강조하면서,

- 한편으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중소기업 서민 등 **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**를 잊지 않는 **국민이 공감하는 세무조사**를 운영하도록 주문하였음

□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은 **중소기업 소상공인**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**조사대상 선정 제외** 등을 통해 **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**하되,

○ 불법 폭리행위로 **서민경제를 침해**하면서도 소득을 탈루하는 **탈세자**는 **전국 단위의 기획조사**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,

- 지난해에 이어 **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,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행위** 및 **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**에 **계속 주력**하기로 하였음

□ 아울러, 이현동 청장은 올해는 **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로부터 한 치의 오해가 없도록** 조사선정, 집행, 종결의 모든 과정을 **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**하도록 강조하는 한편,

○ 부조리 예방을 위해 **세무조사 분야**에 대한 **강도 높은 내부감찰**을 지시하고, 관리자들이 **소속직원 관리에 각별히 노력**해 줄 것을 **거듭 당부**하였음

Ⅱ.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

1 중소기업·서민이 세무조사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토록 적극 지원

□ **올해의 세무조사 규모**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정된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**예년과 유사**한 **18,000건 수준**을 유지하되,

* '10년 18,156건 → '11년 18,110건 → '12년(계획) 약 18,000건

○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**대(大)납세자**와 사채, 전문직 등 **과세 취약분야**에 **조사를 집중**하는 등 세무조사를 전략적으로 운영할 것임

□ 먼저, 연매출액 **100억원 이하 중소법인**은 **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**하겠음

○ **전체 법인의 약 94%***를 차지하는 **100억원 이하 중소법인**은 **정기 조사대상 선정**에서 **원칙적으로 제외**하고,

* '10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약 44만개로 이중 100억 이하는 41만개에 달함

- **지방기업, 장기성실기업 사회적기업**은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하더라도 **낮은 조사비율을 유지**하거나 **조사선정 제외**를 통해 우대할 예정임

□ 또한,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**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**은 **세무조사를 유예**하겠음

○ 일정규모 이상 **고용인원이 늘어나거나 증가시킬 계획**이 있는 기업은 **'13년말(최장 '14년말)까지 조사 유예**를 받을 수 있음

유예 기준	유예 기한
'12년 상시근로자수가 '11년 대비 **3% 이상 증가**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**중소기업**	'13.12.31. (지방기업은 '14.12.31.)
'12년 상시근로자수가 '11년 대비 **5% 이상 증가** 또는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**중소기업 이외의 기업**	'13.12.31.

* 유예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유예 안내 내용에 따라 조사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유예 받을 수 있음

2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·고질적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

□ 과다한 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를 일삼는 **서민경제 침해 탈세 사업자**에 대해 **기획 세무조사를 집중**하겠음

○ **지난해** 고리대부업 등 서민의 생활부담을 가중시킨 **민생침해 탈세자 189명을 조사**하여 **1,314억원을 추징**하고, **수사기관 고발, 과태료 부과** 등 조치하였음

* [붙임] '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고리사채업자' 조사사례 참조(사례6)

○ **올해는 서민밀접 생필품**을 취급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 등으로 **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**하는 **유통문란 업체**에 대해 **전국 단위의 기획조사**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,

- 사채, 다단계판매 등 **불법 폭리행위**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**민생침해 탈세자**를 **철저히 색출 조사**할 것임

○ 또한, 수입원가 관세의 인하로 **가격하락 요인**이 있으나 **재고 조절** 등으로 **높은 가격을 유지**하는 업종은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확인된 **탈세 사업자를 선별 조사**할 계획임

* **'12년 1차 조사로 6개 업체에 대해 1월31일 조사 착수**(p.6 참조)

□ **대기업**이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**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**을 갖추도록 **꼼꼼한 세무검증을 지속**할 예정임

○ 연매출 **5천억원 이상 대법인**의 **조사 주기를 5년**(현행 4년)으로 늘리되, **조사대상 연도를 3년**(현행 2년)으로 확대하고,

* '10년 기준 5천억 이상 법인은 567개로 연간 약 110개 법인을 조사할 예정

- 정확한 세무검증을 위해 **탈루혐의가 상당한 거래처 관련 기업·관련인**에 대한 **동시조사를 확대**할 것임

○ 앞으로는 정기 순환조사대상 법인이더라도 **고의·지능적 탈세 혐의**가 있는 **법인**은 **비정기조사 수준**으로 **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**할 것임

○ 또한, 중소법인 조사 축소에 따른 여유 인력을 활용하여 연매출액 **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비율***은 예년에 비해 **상향 조정**할 계획임

* 대법인 조사비율: '10년 15.7% → '11년 18.0% → '12년(계획) 19.0%

□ **주식·부동산 부자 등 대재산가**에 대한 **세원관리를 강화**하여 성실납세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겠음

○ **지난해**에는 탈세 혐의가 큰 **고액재산가 869명을 조사**하여 **1조 1,408억원을 추징**하는 실적을 올렸고, 변칙 상속 증여에 대한 **다양한 탈세수법을 확인**하였음

* [붙임] (사례 1) '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편법 상속'
(사례 2) '자녀소유 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한 우회 증여'
(사례 3) '비과세 무기명 금융상품을 활용한 변칙 증여'

○ **올해**에도 대재산가 본인은 물론 그 **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**의 **소득 재산 변동내역까지 통합 관리**하고,

- 특히, 재산규모에 비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**주식·부동산 부자,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**를 대상으로 **주식의 편법증여, 재산 차명은닉**을 중점 검증할 예정임

* **'12년 1차 조사로 대재산가 11명에 대해 1월31일 조사 착수**(p.6 참조)

○ 또한, 매출액 **1조 이상 주요 그룹법인**에 대한 **주식변동조사를 더욱 엄정히** 하여 **세부담 없는 경영권승계**를 **적극 차단**할 것임

□ 올해도 변칙적인 국제거래를 이용한 **반사회적 역외탈세**는 **끝까지 추적하여 엄단**하겠음

○ 지난해 **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시행**에도 불구하고 **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34명**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**612억원을 추징**하고, **11명**은 **과태료를 부과**하는 등

- **역외탈세 추적 업무를 본격 가동**하여 **총 156건의 탈세 사례를 조사**하고 **9,637억원을 추징**하는 성과를 올렸음

* [붙임] (사례 4) '해외자회사 지분을 조세피난처에 이전 은닉'
(사례 5) '국내투자자가 외국계펀드 자금으로 위장해 우회 투자'

○ 올해에도 작년 한해 한층 **강화된 국제공조**와 **해외정보 수집 예산**을 토대로

- **창업 2~3세대**가 경영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**역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**는 물론,

- **해외비자금** 조성, 호화생활자의 **외화 밀반출, 원정도박**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탈세행위는 **끝까지 추적 과세**하여 **국부유출을 방지**하고 **국민경제를 보호**하겠음

* **'12년 1차 조사로 14개 업체에 대해 1월31일 조사 착수**(p.6 참조)

Ⅲ. 2012년 첫 번째 기획 세무조사 착수

□ **국세청**은 앞서 밝힌 **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** 에 따른 **첫 번째 조치**로,

○ **서민생활과 밀접한 관세인하 수혜품목**을 취급하면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**탈세한 혐의가 큰 사업자 6명**에 대하여 **1월 31일 세무조사에 착수**하였음

-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**관세인하 혜택**을 누리면서도 **물량 조절**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, **거짓세금계산서 수수, 가공 경비 계상** 등을 통해 탈루한 혐의가 높은 사업자들로,

- 주로, **주류 수입업체, 기호음료 유통업체, 육류 유통업체** 등이 포함되어 있음

○ 이와 함께, **서민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**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탈세 혐의가 높은 **민생 관련 고소득 자영업자 48명**에 대해서도 **1월 세무조사에 착수**하였음

< 해당 조사유형 >

- 불임부부 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**산부인과 산후조리원**
-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**사채업자**
- 신용도가 낮은 자금수요자와 대부업체간 대출을 알선하고 소비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불법 수취해 세금을 탈루한 **대부중개업자**
- 고액수강료를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탈세한 **입시학원**
- 저가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**장례식장** 등

□ 또한, **재산을 편법으로 대물림한 혐의**가 큰 **대재산가 11명**과 **역외탈세 혐의**가 있는 **14개 업체**에 대해서도 **1월 31일 세무조사에 착수**하였음

○ 이번에 조사받는 대재산가들은 **주식의 고 저가 거래, 채권의 차명은닉 등**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탈세한 혐의가 있는 **관련기업**까지 **동시에 조사**하고 있으며,

- 역외탈세 혐의 업체들에 대해서는 **국외사업소득**을 **조세피난처 소재 유령회사의 소득으로 위장**한 혐의, 국외발생 **중개수수료 수입**을 **개인계좌로 수취해 신고 누락**한 혐의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임

□ 앞으로도, 앞서 밝힌 운영방향에 맞춰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**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 투명하게 관리**하면서 **중소기업 서민**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**적극 지원**하고,

○ **탈세에 대해서는** 세무조사를 **엄정하게 집행**함으로써 모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**자기 몫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**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음

생 산 일	2012년 1월 31일(화)	생산부서	조사기획과
발 표 자	임환수 조사국장	담당국장	임환수 조사국장
담당과장	임광현 조사기획과장	담 당 자	유재준 서기관(02-397-1912)

세미래 콜센터 126 세법상담에서 연말정산까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.

[붙임]

편법 상속·증여, 역외탈세 및 민생침해 조사사례

구분	유형	내 용
1	변칙 상속·증여	○ **중견기업 사주2세(상속인)**는 父(피상속인)가 임직원 등 **명의로 은닉하던 차명주식**을 물려받고도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고 - 상속인(子)은 본인 소유 회사에 해당 차명주식을 **저가 매각하는 수법으로 실명화**해 稅부담 없이 경영권 승계
2	변칙 상속·증여	○ 고령의 **사주가 기업을 매각하여 받은 900억원의 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해**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고 - 동 회사가 인수한 **페이퍼컴퍼니에 예금, 펀드, 주식 등을 무상 증여**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재산을 편법 증여
3	변칙 상속·증여	○ 재산은닉을 위해 **국세청에 자료제출이 안되는 비과세 금융상품**, 이자가 거의 없는 장기 국공채 등 **무기명채권 취득자금 수백억원을 장기간에 걸쳐 자녀에게 증여하고**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
4	역외 탈세	○ 국내 계열사 및 해외 지주회사의 **지분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(BVI) 소재 페이퍼 컴퍼니에 이전**하고 - **해외발생 소득을 해당 페이퍼컴퍼니에 은닉**하여 사전 상속 시도
5	역외 탈세	○ 국내 투자자가 **검은머리 외국계 펀드 자금으로 위장하여 우회투자**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세 탈루
6	민생 침해	○ **건설회사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신고**하여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**은행 잔고증명용 자금을 대여**하고 **이자를 차명계좌로 입금**받는 방법으로 탈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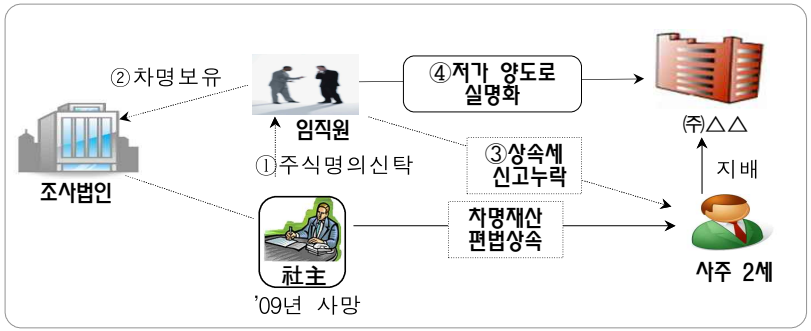
사례 1	중견기업 사주2세(상속인)는 임직원 명의로 은닉한 차명주식을 물려받고도 상속세 신고누락, 이후 차명주식을 본인 소유회사에 저가로 매각하는 수법으로 경영권 편법승계

□ 인적사항

○ 법인명 : ㈜◇◇◇ ○ 성 명 : 김△△

○ 소재지 : ◎◎시 ○ 업 종 : 제조업

□ 주요 적출내용



○ 중견기업 사주 김△△는 편법 상속을 위해 '99년부터 본인이 **소유하던 주식 등을 회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**

○ '09년 사주 김△△가 사망하자, 사주 2세는 차명으로 물려받은 주식·부동산 등 **190억원을 상속세 신고시 고의로 누락**

- 이후 임직원 명의의 **차명주식을 사주2세 소유회사에 저가로 매각하는 수법**으로 실명화하여 세금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함

□ 조치사항

○ 주식 등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 **185억원 추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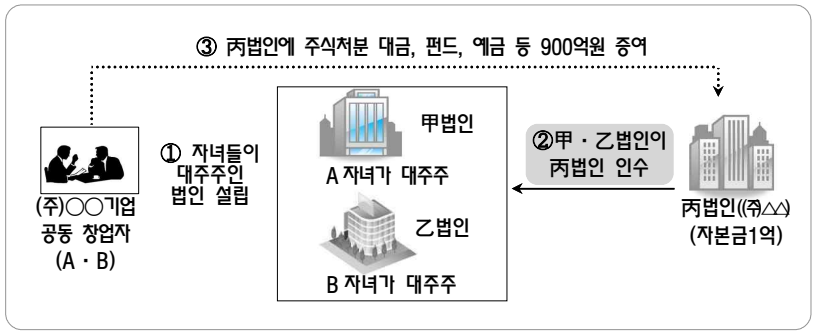
사례 2	다수기업을 운영하는 사주가 주식처분 대금 등 수백억원을 자녀 소유회사의 자회사에 변칙 증여한데 대해 증여세 과세

□ 인적사항

○ 법인명 : ㈜△△ ○ 대표자 : 이○○

○ 소재지 : ◎◎시 ○ 업 종 : 서비스업

□ 주요 적출내용



○ ㈜○○기업의 공동 **창업주인 A·B**는 **사전에 치밀한 계획**을 세워 각 **자녀들이 대주주인 법인 甲·乙을 설립**(인수)하고 이들 甲·乙 법인이 다시 공동으로 **법인 丙(㈜△△)을 인수**하도록 한 후

- 운영하던 ㈜○○기업을 **처분한 대금,** 펀드, 정기예금 등 900**억원**을 **丙법인에 증여**함으로써 **丙법인의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**함

○ 결과적으로, **丙법인의 실질주주**인 **자녀들은** 부모 A·B의 **기여로 인해**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**丙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**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**증여세 신고를 누락**

□ 조치사항

○ 변칙증여 행위에 대해 자녀들에게 **증여세 194억원 추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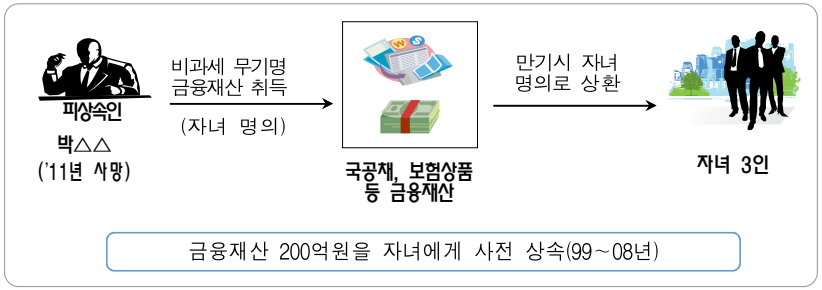
사례 3	금융재산 부자가 재산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자소득이 없거나 비과세로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장기보험상품, 장기국공채 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수법으로 증여세 탈루

□ 인적사항

○ 성 명 : 박△△ ○ 직 업 : 개인투자자

○ 소재지 : ◎◎시

□ 주요 적출내용



○ ◎◎시에서 금융부자로 알려진 박△△는 死後에 자녀들의 재산 다툼을 방지하고 **세금 없이 富를 대물림**하고자 거액의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**사전 상속**하고 **증여세 신고를 누락**

- 7년 이상('04년부터는 10년) **장기 비과세 연금보험, 장기 국공채**의 **취득자금을 증여**하면 **이자소득세 비과세로 재산노출이 안될** 뿐만 아니라, **취득시점이 오래되어 자금출처조사가 어려울** 것이라고 판단하여 99년부터 08년까지 **200억원을 사전 증여**

* 조사팀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속인들이 거액의 금융상품을 소유하는 점에 착안하여 **10년간의 자금흐름**을 도표로 제시하고, **수백개의 계좌를 추적**해 증여세 탈루사실을 적출함

□ 조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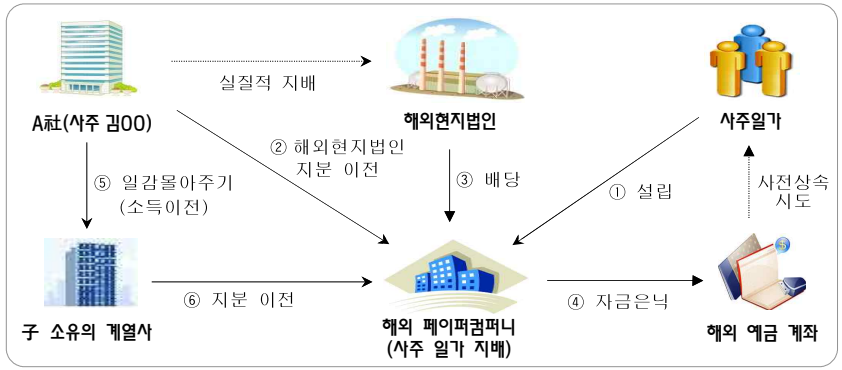
○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**160억원 추징**

사례 4	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시도에 대해 국제공조 및 다양한 정보수집을 통해 적발하여 탈루 세금 추징

□ 인적사항

○ 상 호 : A社 ○ 대표자 : 김○○

□ 주요 적출내용



○ A社의 사주 김○○은 **사주일가가 설립**한 **버진아일랜드**(BVI) 소재 **해외 페이퍼컴퍼니**에 **해외현지법인의 지분을 매각**한 뒤,

-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**배당 소득 등을 국내에 신고 누락**하고, 동 **자금을 해외 예금계좌에 예치**하여 별도 관리

○ **子 소유의 국내 계열회사를 설립**하고 **A社가 일감을 몰아**준 뒤 이 계열사의 지분마저도 **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이전**

* 사주 김○○의 역외탈세 혐의 확인을 위해 **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· 역외탈세 관련 인력과 예산**을 활용하고, **공식적 · 비공식적 정보수집**을 통해 **탈세 및 대물림 시도에 대한 전모**를 밝혀내어 과세한 첫 사례임

□ 조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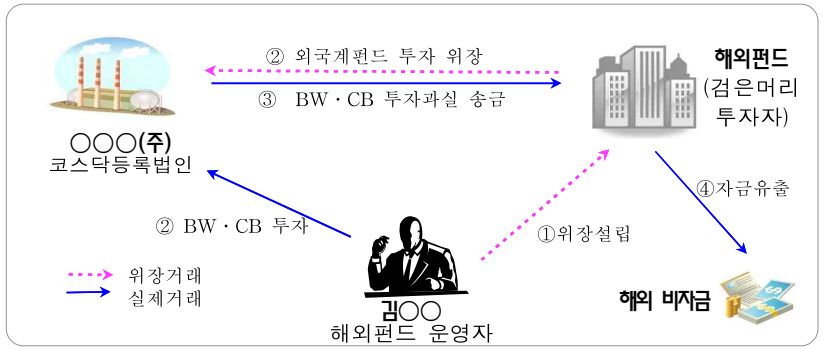
○ 소득세, 법인세, 증여세 등 관련 **탈루세액 208억원을 추징**하고,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**과태료 부과**

사례 5	국내 투자자가 검은머리 외국계 펀드 자금으로 위장하여 우회투자하고 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세 탈루

□ 인적사항

○ 성 명 : 김○○ ○ 직 업 : 서비스/컨설팅

□ 주요 적출내용



○ 김OO는 발생소득을 해외에 은닉하고 **외국인 투자**를 **가장**하기 위해 **조세피난처**인 버진아일랜드 및 홍콩에 **위장 해외펀드**를 **설립**

- 이후 ○○○(주)와 같은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코스닥기업이 발행한 **해외전환사채(CB)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(BW)**를 해외 위장펀드가 인수한 이후, 수취한 고율의 **이자소득을 해외은닉하고 탈세**

○ 또한, **김OO와 관련인**들은 해외위장펀드가 보유한 CB나 BW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해외투자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려 막대한 양도차익을 올리고도 세금신고 누락

* 외국인보유비율 상승 공시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국내투자자는 막대한 투자손실

□ 조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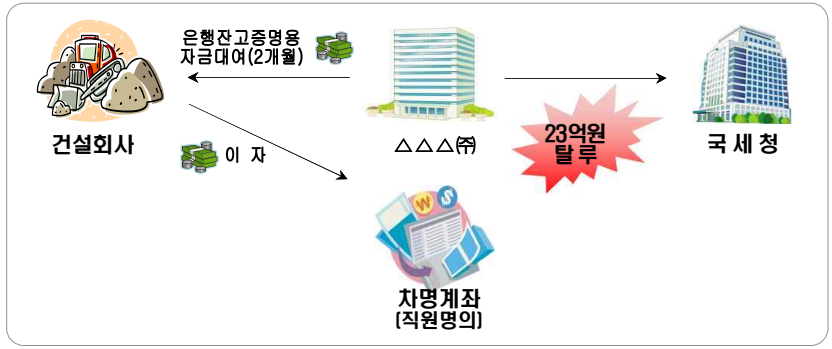
○ 김OO의 소득세 등(215억원)과 관련인들의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(388억원) 등 **총 603억원**을 **추징**하고,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**고발**

사례 6	건설회사가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 은행 잔고증명용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탈세

□ 인적사항

○ 법인명 : △△△㈜ ○ 대표자 : 이○○

○ 소재지 : ○○시 ○ 업 종 : 금융업/대금업



○ △△△㈜는 주로 건설회사를 상대로 자금을 대여하는 대부업체로서

- 건설회사가 **건설산업기본법** 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업종별 **실질자본금 기준** 충족 여부를 등록관청 등에 **주기적**으로 **신고**하여야 하는 점을 이용하여
- 재무구조가 부실한 중·소규모 건설회사에게 실질자본금 규모를 맞추는데 필요한 **은행 잔고증명 발급용 자금**을 단기간 대여하고
- 고리의 이자를 직원 명의 **차명계좌**로 입금받는 방법 등으로 **23억원**의 이자수입금액을 탈루

*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회사는 면허유지를 위해 주기적(매3년)으로 재무제표, 은행 잔고증명(2개월간) 등 실질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(종합건설업: 대한건설협회/전문건설업: 시 · 군 · 구청)

□ 조치사항

○ 탈루소득 **23억원**에 대한 **법인세 등 17억원**을 추징하고 **고발**